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이정희
편집장	최원일
외대학보	(☎955-7048, 961-4152)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130-791 서우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창선리 589	
인쇄인	김영수

569호 1991년 6월4일(화)  
제3종 우편물(7)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 본교생, 국무총리에 격렬항의

정권의 국무총리시리가 이제(3일) 본교 학생들에게 제헌-일기부 세례를 받는 시간이 발생하였다. 노재봉 국무총리 피진후 5월24일 후임으로 임명된 정권의 국무총리시리는 취임 9일만에 '총과 취임 만대, 즉각 피진요구를 '적절히'으로 달한 것이다.

3일 오후7시경 정권시총리가 본교를 방문했다는 출입기자들의 제보를 받은 본교 학생들은 곧바로 교문으로 집결. 「기민적인 내각 교체,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약50여명의 대열을 형성했다. 5-6명씩 조를 짰 학생들은 교문을 닫고 후문, 대학원, 현관 등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국무총리 일행의 회의를 차단했다.

7시15분경 대학원 418호 강의실 복도도 들어간 30여명의 학생은 「참교육을 죽이더니 키정이를 또 죽였다. 정권시은 몰라가라,」 「신성한 외대교단 살인마가 더럽혀라. 정권시를 끌어내라,」라는 구호를 연호하자 정권시는 강의를 중단하고 수강생 1백여명의 막사를 받으며

「마지막수업」을 마무리지었다. 정총리가 수행원 심익명의 보호를 받으며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키정이를 살려내라,는 구호와 함께 제헌이 날아들었으며, 정총리 일행은 건너편 400호 강의실로 문을 피했다. 약5분간의 기저회전이후 학생들에게 의해 떠밀려 나온 정총리 일행은 다시 제헌-일기부 세례를 받으며 대학원 현관으로 밀려

내리오는 과정에서 수행원과 학생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5백여명으로 불어난 학생들은 대운동장을 거쳐 교문으로 행진하면서 연달아 「공안통치분쇄, 구호를 외치자 8시경 정총리 일행은 교문을 빠져나갔다.

개인시리를 집어안 정총리일행은 휘청청 방면으로 사라졌고 곧바로 경찰병력 1개 중대가 투입되었으나 본교생은 이미 학내로 철수한 상태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정권의 신임총리는 올해 3월부터 본교 교육대학원 대우교수로 「생활지도특강,과목을 매주 월요일 6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친 연강을 해 왔음도 이날 뒤늦게 밝혀졌다. 수강신청자수는 60여명으로 「합생지도, 「카운셀러,분야를 가르쳐 온 것이다.

본교 총학생회는 이날 비로소 이 사신을 알개되다며 「애국외대의 수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탄 및 경의회의를 이날 저녁 8시부터 30분간 가지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건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사태확락을 통한 조작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6월5일 「안기부 전격투쟁,으로 표현시켜 6월8일 제5차 국민대회로 집약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후 단위사건에서 진행될 임금투쟁에 학생운동이 지원하고 「외대학생 유서조작사건,에 대한 진노회의 규탄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보여왔던 자기조직에 국한된 투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6월말을 전례화시절 정국의 또 다른 변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움직임이다.

남한노동운동의 「매카,로 불리우는 이곳에서의 단체협약 폐쇄는 노동운동전면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곧바로 전체운동전선의 투쟁열의를 일정정도 장식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가올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이외에 스미영등 노동위원장 대표권 인정 스미영과 부위원장을 내걸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시에는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6월2일 기자회견과 만찬자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스미영, 부위원장 노재우에 이같은 안을 상정, 협상의 진척이 없으면 스미영, 부위원장을 교체하고 7월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바 있다.

### “공안중식·민주정부수립” 외쳐



어제(3일)정권시 총리가 황급히 교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2의 6월항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동자 학생의 연대의 것만이 전대면 출범식장에서 나왔다.

전대회의 한 관계자가 밝히듯 제5기 출범식이 부산에서 개최된 것도 이같은 목적을 포괄한 것이었다. 부산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남한 최대의 산업지대는 평소에도 가장 원호노동자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올해 5월투쟁에서는 가장 세련된 조직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적 특수성에 학생운동이 결합할 경우 이후 지속적인 노학연대의 틀을 놓아나갈수 있다는 투진열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성공할 전망이다.

전대협출범식 사상최초로 1만여명의 진노협소속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학연대의, 결의문을 채택한것이 그것이다.

이같은 양자간의 조직적 결의가 나올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운동의 선봉적 투쟁으로 이뤄낸 5월 비상시국은 노동운동전선의 5-18 총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앞으로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전체운동전선의 비약적인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행보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투진열의 「사건과 투쟁은 5월하순으로 집어들면서 보이지 않는 운동의 정체를 가져왔고 「분노한 대중들의 조직화를 통한 「사실운동전의 조

## 노·학연대투쟁 본격화

노동자 1만명 참가, 공안기구 철폐 결의  
현중노조 총파업 조집이 주요 변수

적외 연대,라는 시급한 과제를 남겨주었다. 이렇게분해 전대협과 진노협의 연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않았다. 이같은 당위성에 실질적인 계기가 된것은 두 단체가 채택한 공동성명서에 의하면 박창수(한

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귀정(성균관대 불문)연사의 「타살규탄,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은 박창수연사의 사안을 「구직소 안에서의 공과 안기부의 개인에 의한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전대협도 김귀정

사 사건을 「정부는 압사와 질서사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 실질적 원인이 안기부,기부사,적인분부등 「공안기구 철폐,를 구체적인 쟁점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정권의 「공안통치분쇄, 구호를 외치자 8시경 정총리 일행은 교문을 빠져나갔다. 개인시리를 집어안 정총리일행은 휘청청 방면으로 사라졌고 곧바로 경찰병력 1개 중대가 투입되었으나 본교생은 이미 학내로 철수한 상태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 사설

#### 정부, 「반국가단체」 고집 꺾어야

—북한의 유엔가입 발표를 듣고

북한의 지난 28일 유엔가입 발표를 듣고서 마냥 기뻐하는 언론들을 보려는 이를 기뻐하도록 만든 정부의 통일외교에 의외를 본다.

「투기의 조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미-소-중을 비롯한 각국에 대한 외교의 성공을 정부는 기뻐해 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유엔에 만들어진 것의 한국 의식은 다된 것이다. 다만 없지만, 그만큼 통일에 대한 전망도 밝아야 하는데 그 밝기가 없다.

20년간 고수해온 북의 주장을 꺾어버린 남한의 태도가 믿음만 하지가 않고 또, 지금까지 정부는 한 일이 없지않았다. 슬하해 해 온 남북 회담에서의 태도가 그러했고, 국제적인 자서적이 정부의 입장이 항상 그러했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안, 평화협정 체결, 우한비교협정 등 북한의 주장 무의 하나에도 정부는 귀가울린 적 없고, 북한이 양보한 정도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단위단일된 구성, 청소년 출구된 구성에 기울인 노력만은 정치적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이기 위한 통일정책만 구사해 온것이 사실이다.

통일외교에 투쟁하는 소위 「북한의 대남적외교,를 북한의 「미군정시외선,보다 더욱 강변해 왔고, 통일은 독일식 흡수 통합이 해결될 것임,로 고집을 부려왔다. 이러한 정부의 대내외적인 통일 정책의 성과로 정부는 유엔 분리규정을 결국 얻어냈지만, 이는 지속적인 성과 기업을 막기위해, 즉 통일을 이뤄 단위의 성 기업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외전에 귀 기울이고, 들을 것은 들어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이제는 남은 유물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고, 남북인사를 식별해야하며, 더없이 이젠 대이상 논리의 모순적인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분기점조약을 내용으로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것이다.

유엔 분리규정 전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명분에 맞았을지라도 이제 북한은 대이상 국제적인 명분으로도 단지 반체제가 아닌 함께 통일을 해야 하는 한나라이기 때문이다.

#### 더이상 역사의 방관자는 되지 말자

80년 광주항쟁이후 계속되는 군부독재에 철폐를 가했던 6-10 항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고 있다.

만시 되었던 「독재체,는 6-29라는 기민적인 민주화 조지와 선거혁명의 환상 속에서 어느정도는 그 성과를 감시 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87년 6월은 매년 통일운동의 기록체로, 혹은 독재타도의 신호체로 변하여 다시 살아오고 했다.

지난 5월부터 계속되었던 대규모의 가두투쟁과 가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노태우정권에 대한 분노는 노재봉 내각의 사퇴를 촉구하고 싶던 정권의 정권시 내각의 임명으로 변할 수 없는 노태우 실인 정권의 분열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였다.

이미 시국은 지금의 싸움이 일회적 출렁기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계속되는 공안살인은 청년 학생들에게 투쟁의 도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현 시국의 임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자각자 개인적인 안위를 버리고 거리거리로 나가는 일이다.

더 이상의 방관은 어떤 해도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파이어머더 이상의 주저는 죽을 앞에 놓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다가고 있는 87년 6월의 항쟁. 지금의 6월은 앞으로 다가올 92-93년 민중연결 쟁취를 위한 교두보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애국외대의는 대이상의 공민복합을 막고 시대의 민시사상을 풍용하는 노태우 살인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떨치 나가야 한다.

애국외대의의 총력기반이 정착하려는 역사를 바로 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각인하자.

## 외대 학보 광고 투쟁 승리

중간호를 내면서 말씀드리게 되는 저희의 불찰에 먼저 사과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외대학보의 광고투쟁 승리는 1만3천 외대인의 힘이 함께 했던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하는 외대학보는 민족자주언론으로 울분게 서기 위한 달음질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외 대 학 보

# 흡산의 소리

## 큰 뜻아래 모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대동제를 위하여

—분열되고 퇴락한 대동제를 바라보며

올해로 흡산은 11번째 대동제를 맞이하였다.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대동제의 개최 문제 자체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11년째 흡산들과 함께한다는 총학생회의 (이하 총학) 결정으로 강행할 계획이 되었다.

이러한 대동제가 지난 여름 하나된 흡산단, 단결된 외대인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생각으로 11년째 첫 무어진 이번 대동제에서 발생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동제 기간 중 수입이나 판매에서 지니는 문제가 많은 것을 판단하는 자세를 따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UR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UR협정의 타결은 곧 우리의 민족 경제와 생존권이 위기에 대해 철저한 유념을 요하는 것이므로 임정하에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UR협상을 반대해 오지 않았는가? 심지어 공익광고에도 외국산 농산물들을 띄우려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마라톤 양심이라는 청년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입 농산물의 판매를 이어나가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차라리 농민들이 좌

를 저해하는 대학생협소비자 협동조합(이하 대협협)의 대조보 철거 문제이다. 대협협은 지나친 주권의 난투를 받고 영업시간 등을 준수하지는 것과 모자라는데 디스코 맥 운영에 자제를 호소하는 대조보를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모던대 학생회장과 몇몇 학생들이 이 대조보를 철거시키지 않았던 일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협협은 일반 대중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함꼐 받아야 실현하는 우리의 모더니즘 많은 학생들이 대협협 회원이 되어 근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협협 학생들의 요구를 미비한다고 할 수 있는 대협협은 소비적인 대동제 분화기를 막고자 위와 같은 대조보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대조보를 철거시킨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의사를 밝혔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를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제기된 무절서이다. 흡산은 서울을 떠난 달리 교통이 매우 불편한데 대동제 기간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늦게 귀가를 했기 때문

이런 행위로 많은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를 못했으니 승차장에는 함박만 한 사람이 조성과기도 하였다. 총학생회와 학생들과 몇몇 뜻있는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절서는 무절서는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대동제는 하나의 외대인, 단결된 외대인을 만들자는 뜻 그대로 크게 갈아차 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대동제 대동제를 보았고 너무도 현실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10월이면 서울 캠퍼스에서 「시월제」라는 것을 것이다. 이번 「시월제」에서는 황산의 잘못을 거를 삼아 대동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인문·사회2 인기환)

## 건전한 대학문화조성에 대한 외대인의 공감을 바라며

—외대 사랑 순찰대가 외대인에게

이제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3학년 다 거의 다 지났다. 활동한 1학년이 조금 더된 지금 외대사랑 순찰대의 일원으로서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글을 쓴다.

캠퍼스의 밤이 그만큼 열이되고 폭력과 무절서가 난무하는 이때에 순찰대의 활동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열두밤(열두밤)으로 학우들을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사관앞에서 울리시며 고성 부르는 학우나, 나 웃기까지, 회자들을 모욕하는 행위

우리는 얼마전 신문 기사를 통해 산제 교육 차를 배당하고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고강도 노동은 강행시킨다. 물체 단위로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사용되는 벌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다루기 직업병의 경우에는 그것이 노동자의 자원의 절감에 이치적인 사명을 오도하려 한다. 노동자에 대한 건전한 지적 명령에 항정시키는

## 사회의 마비된 양심도 직업병의 주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직업병이란 개념이 내러지는 것을 분쇄하려 하고 한다. 세계 단위로 일한 업무 중 제1차 직업양도 판정위원회 제보 보상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담금을 낮추고자 한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노동자에게 그 사명을 비열히 불인양으로 직업병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사측에서 추천한 의사 3인과 유역에서 추천한 의사 3인이 모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진료 결과를 위원회는 과평에서 의견 대립이 생겨 결국 각 의사마다 개인 소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자연과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자리에 사용자 측 의사와 노동자 측 의사 대립한다는 사실은 우습기조차 하다.

너도나도 민중탐압 발전하는 파소세력

—슬쉬한 노래기—

아, 비둘리아! / 아저도 그대로

—N80—

늘어나는 열사와 민중투사들.

—外法—

모름이 고놈이다.

—고년이—

개자이후 그들의 모습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신선연91—

변한진었다. 우리의 투쟁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뿐. —R91—

우리는 나라를 부추기 발전해—

—노가대 회고록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가? —통수—

원칙이, 대우야! 나날도 꽃다발 조실하— —간디—

대우의 나아갈 길:노대우는 자진해서 평화로 나가리라 나의 혀를 깨물어라! —보살이—

주제:개각, 그 이후...

그러나 난 보았다. 백담사에서 두원이 행보. —카를이—

### 지성인의 한 밤 원맨쇼

28일 새벽 1시경. 원맨쇼 차림의 남자가 무전기를 켜고 대동 정문 수취실 침대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벨리 문을 열려고 고집질하는 말로부 시끄럽게 말했다. 수취실 유리창 밖에 창문이 쳐져 있지 않았던 유리창이 깨졌을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기 신분이 특수 기동대인데 지금 당장 비상 출동을 하라는 무전 연락이 왔으니 문을 열지 않으면 근무하는 벌 제비가 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슬랩잡을 주축:무전기에서 개인 사정이 있다고 무전기를 켜고 고소를 해가면서 정문에 자물쇠가 채

(정문근무자 김병호)

순찰시엔 더욱 기세를 부리며 타고 가거나, 누구누구 아느냐며 백(?)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좋아하지는 않았다. 외대생으로서 자신있거나 양심에 거리는 일일 많은 하지 않다.

순의 말이나 고집질 하는 것은 10시이후 활동하는 순찰대나 운동부 학습소의 순찰대방을 찾아다니고 고압했다. 이번 자그마한 공판 대 형성과 이가 앞으로의 건전한 대학문화와 조성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클로로 고생하는 순찰대에 지나치면 건네는 수고하라는 인사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결 외대인에게 말해 주고 싶다.

(외대사랑 순찰대장 상경·경재4 현승우)

##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않은가

5월30일 성대생들의 예타는 호소와 운동부의 항쟁은, 대학의 현실 모습과 함께 그리고 외대인의 무관심, 불참을, 철저한 이기적 태도가 이루어진 외대의 상황을 규명하게 보여준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슬슬한 기분을 자아냈다. 또래의 의견수렴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다른 대동 측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외대생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FBS가 외대 행사를 미행할 이유로 시대에 개입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게 치사하다.

외대인은 운동부, 정, 음악, 대학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무슨 강연회, 집회에 강간도 불복종한다. 서 선배나 외대생이 불복종한 들직한 현수익이 팔기중이다. 그러다 보니, 유익한 선배를 자랑한다는 존재 그 이상으로는 여기가 아니다. 이것이 외대인가? 우리가 외대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매일 질질 끌러다니고 분기까지 싸서 일어난다 하

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외대의 비극적 종말의 요인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외대인 모두에게 촉구하며 몇가지 공개적 질문을 던진다.

첫째, 외대생들의 목적이 한눈에 보였지만 그 할 조정해서 우리 모두의 정화를 이뤄주지 못했는가. 둘째, 정권취사가 급진 3월에서 5월까지 외대 강연회나 바에 강연한 사안을 기본 매체로 통해 일어난데 학교의 비민주적 인사 채용을 해 공포에 주지 않았다.

셋째, FBS가 자제를 연례행사라는 명목으로 계속 강행해야 하는 상황인가? 외대를 위해서 꼭대기 강행한다면 행사자체에 반성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조국은 서정적 문화를 먹이기에 너무나 시대를 이었다.

이상의 몇가지 질문으로 외대인의 기개적 속성을 놓고, 거듭남을 촉구하며 글을 쓴다.

(동양·중국과3 김병덕)

## 도서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기말시험이 있다. 도서관은 또다시 북서풍을 이루며 새벽부터 도서관 방문객이 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과외적으로 배부러 할 일 많은 학생복지위원회를 수고롭게 할 것이다.

여름가게는 기말고사뿐 아니라 도서관에 예전에 모두 일일과를 써야 할 것인가. 좀더 일일과를 써야 하도록 하고 소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짧은 시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반드시 휴게실을 이용하여 되겠다. 정이공부를 하면서 재량적책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

는데 작은 소리라도 옆의 사람은 신경이 쫓겨할 뎡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자리가 없이 공부하다가 리 적지라 옮겨다니며 공부하는 학생(일명 배부러)들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자제를 비추고자 할 때는 메모로 부채질권을 적어놓는 친절함을 보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작은 일 하나가 소중한 곳이 바로 도서관임을 우리 외대인 모두는 알아야 한다.

(법·법3 김승우)

명수당 직업병을 낳는 돈

이 은 영 (법학과 교수)

얼마 오지 않은 선입학의 뒤 언에서 지나치게 많은 노동자들이 업무중 사망, 부상, 질병으로 희생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그간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2백30만명이 이르렀으며 그중 사망자가 2만7천명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요 몇년간은 하루에 5-6명정도 사망하는 셈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나타난 숫자만큼 엄청치지만, 제아 노동단체에는 엄연한 업무중 재해인데도 산업재해로 취급해주지 않는다고 분노를 터뜨리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통계에 잡히지 못하고 죽은 노동자 수도 통계 숫자에 육박하거나 아예 면 그를 숨기기도 모른다. 통계에 잡힌 해에 노동자들은 그 해에 노는 편이다. 보상이 충분했느냐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듯 업무중 재해로 판정받아 치료와 보상을 받았을지 모른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할만 무분별한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첫째 단계로 사용하는 직업도중 노동자의 사고위험이나 직업병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업 환경, 작업 시간, 작업 강도 등 모든 면에서 안전성을 위주로 노동 과정을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 개선 시설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길 위험을 무릅 쓰고 적은 비용의 고강도 노동을 강행시킨다. 물체 단위로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사용되는 벌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다루기 직업병의 경우에는 그것이 노동자의 자원의 절감에 이치적인 사명을 오도하려 한다. 노동자에 대한 건전한 지적 명령에 항정시키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June 1991 6

1. (6월 1일) 2. (6월 2일) 3. (6월 3일) 4. (6월 4일) 5. (6월 5일) 6. (6월 6일) 7. (6월 7일) 8. (6월 8일) 9. (6월 9일) 10. (6월 10일) 11. (6월 11일) 12. (6월 12일) 13. (6월 13일) 14. (6월 14일) 15. (6월 15일) 16. (6월 16일) 17. (6월 17일) 18. (6월 18일) 19. (6월 19일) 20. (6월 20일) 21. (6월 21일) 22. (6월 22일) 23. (6월 23일) 24. (6월 24일) 25. (6월 25일) 26. (6월 26일) 27. (6월 27일) 28. (6월 28일) 29. (6월 29일)

현대





# 폭우 뚫고 전진이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폭우도 전대협을 이길 수는 없다** 전대협 출범식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비닐 한장으로도 폭우를 이길 수 있다.



**건설 전충련** 전대협을 강화하여 전국총학생회 연합을 건설하겠다는 열의 속에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화형식**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미제는 이땅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강철 사수대** 제5기 전대협 출범식을 사수하기 위한 사수대의 열의가 하늘을 찌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문화신봉대의 10미당으로 구성된 검체극이 학생들의 많은 호응속에서 진행되었다.



**좌우로 정렬** 15분이내에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강제진압하겠다는 경찰의 경고방송은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지난 1일(토) 부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5만여명의 학생·시민이 모인 가운데 전대협을 강화하여 전충련을 건설하겠다는 결의로 폭우속을 뚫고 제5기 전대협 출범식을 가졌다.  
또한 2일(일) 전대협 백만화도는 전국적으로 개최된 제4차 국민대회에서 6월부쟁의 광장에서 4천만 민중과 함께 노정권 타도 부쟁을 원차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러한 조직의 강화와 대동단결, 대동부쟁으로 87년 6월항쟁은 제창조 될 수 있다. (사진부)



**미국은 물러가라** 계속되는 권안통치의 배후조종자 미국은 이땅의 민주와 통일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특재서원 내정간첩 미국은 물러가라'



**학우가 쓰러지고 있다** 이날도 경찰의 폭력진압은 여전하였으며 이로운데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전경의 호기심** 3시간에 걸쳐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처하고 있던 한 전경이 학생들 이 나누어준 속보를 받아 보코있다.



**이제는 반격이다** 시내 곳곳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외대발전 그 올바른 자기비밀을 위하여

재단권한의 최소화 대학발전의 극대화

학문연구활동의 경제적 토대 마련이 제 임무  
총장선출등 학사운영 불간섭 현실화 되어야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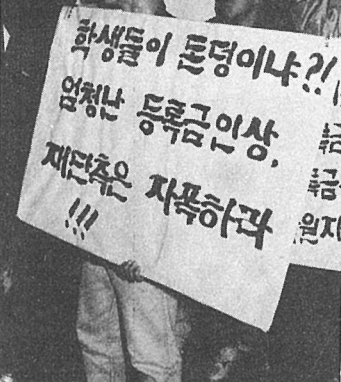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재단의 수익사업은 대학에 환원되어야 한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글쓰는 차례

- 1. 학원의 우선권이 되어야 할 학생회
2. 민주적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3. 경영합리화와 직원문제
4. 대학민주화에 기여할 대학원의 역할
5. 대학후생사업의 문제점과 동문·학부모의 참여방안
6. 무능한 재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시해야 한다. 재단의 거둔가나 위한 노력의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외대발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야기된다면 외대인 모두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나영 기자)

시리즈를 맺으며

대학의 대표적 인력수출원인 이 3주제를 대학의 추진력이 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도 이것이 「대학의 자율·민주적 운영」이란 문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의 실상은 「사립학교법」 「대학평가인정제」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재단이 장악하게 하여 이를 정부가 제약하고 있다.

●「x x」 아르바이트생 구...
○「x x」 아르바이트생 구...
○「x x」 아르바이트생 구...

새활안내

11 아르바이트 추천

추천의 원칙은...
추천의 원칙은...
추천의 원칙은...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올해 등록금부족에 있어 대부분 학교들이 「등록금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동 경천의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권에게 특이한 사립학교 재단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외대발전」이 있다.

Ⅰ.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Table showing financial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with columns for (세입) Income and (세출) Expenditure, and sub-categories like 학생납입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etc.

Ⅱ. 학교회계적정모형 (문교부 1986.12.18)

사학기관 재정운영지침을 통하여 교육비 배분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회계의 성질별 재원배분의 적정규모를 제시했다.

Table showing the appropriate scale of financial source distribution by nature, with columns for 성질별 (By Nature) and 배분기준 (Distribution Criteria) like 인건비, 학생경비, etc.

제25대 통일단결 총학생회 예산편성위원회

위의 예·결산내역과 예산서는 서울·용인캠퍼스와 대학원의 세입·세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총학생회에 제공된 자료를 재검정하여 이해할 수 있게 조정하여 만든 것입니다.







# 북한의 UN가입,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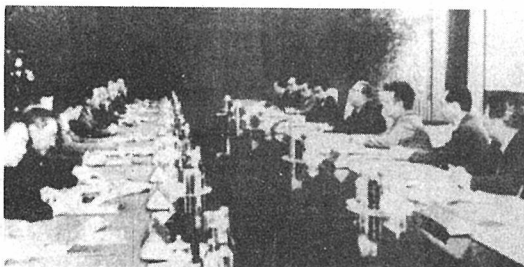
## 북한의 UN가입결정에 따른 정세변화

북한이 「유엔가입 신청결정」을 공식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 및 남북관계, 그리고 민족세력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27일자 외교부 성명에서 유엔가입 신청을 내린 배경과 관련, 남한이 연내 단독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조상권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남한의 단독가입 추진을 「본연 주의를 책동」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조선을 쪼갠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당국의 난국」이란 미국과 남한과의 접근한 유엔단독가입의 강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불가피하게 선택」한 북한의 유엔가입결정

북한의 외교적 열선에 기반하여 남한의 유엔단독가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국제적으로 두개의 코리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제적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조선을 쪼갠다」고 경고한 「하나의 조선」원칙의 일탈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정치적 실재로 승인하는 의미



남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조세현 현 정세 속에서 「하나의 조선」원칙을 위반시키며 한다는 통일 지향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진:중앙일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두개의 국가적 실재의 상호 승인에 기반한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남한당국의 방침에 국제적으로 한걸음 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당국으로서도 강경한 협의의 대결정책의 일정한 외교적 실재이다. 그러나 남한당국은 남북관계 그 자체는 아직 자신의 방침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선원칙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두개의 국가적 실재의 인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강경화론에는 유엔이 아닌 남북당사자간에 논의할 문제라는 논리로 북한의 평화공약을 지지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남한당국이 북한 고립화정책에 기초한 북한 개방과 전락을 고수하는 데는 반대도 불구하고 있다. 게다가 남한당국은 유엔가입 문제를 남북한 공약과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등과 분리하면서 북한이 하나의 조선원칙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조약」의 체결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유엔가입

의 해소와는 거리가 먼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 질서개편주도 속에서 미국과 남한당국은 힘의 우위에 기반한 대북 강경정책을 옹호의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소·가 한 반도의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부추기고 있다. 남한당국은 유엔단독가입을 추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소의 우편한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92-93년의 국내 정치 입장과도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남한당국의 유엔단독가입의 총력전은 상대방을 통일의 주

경에 관한 교섭을 제개할 뜻이 있음을 비추는 한편, 핵사찰문제를 미국과 협상하면 해결해가 나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핵사찰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서도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남한이 주장하는 동시가입이 아닌 한일당국은 예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사찰 수용안이 아니라 핵재처리 시설 때까지 요구하는 등 보다 강경한 태도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 압력의 고비를 조종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의 틈에서 북한의 교섭을 전제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전 일본은 북한과의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사찰문제를 여전히 강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힘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유엔가입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구조를 해소하기 보다는 「조정원」, 「긴장구조의 유지」와도 관련되고, 그 속에서 마찰을 중심으로 한 남북국들의 대결정책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 긴장완화론과 동북아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반도는 냉전의 고도(高潮)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유엔가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구조의 현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전적

# 인사부



제2기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한희수(경희대 총학생회장)를 만나.

제2기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이하 학추위)가 지난 1일 전

소속학원의 UN가입 결정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 조공투쟁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먼저 북한이 왜 UN가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의 외교부 논평에서도 드러나듯이 첫째 남한만의 UN단독 가입 방식이 통일에 관한 진민족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현재 국제사회에서 UN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관련해 남한만의 유엔단독 가입이 조화할 이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에 있어 객관적으로 임시적인 난국이 조제되더라도 남북-해리 통일주체 역량은 기밀로 이를 분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비유하자면 남한의 이혼소송 제(UN단독가입)에 북은 제정당대응으로 이혼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제정당에의 노력을 해나가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년학생들은 북한의 UN가입조치에 대한 냉정하고 냉철한 비판이 공세에 대한 전국민적 인성의 확산과 함께 UN불리가입을 계기로 현실적인 노리는 영구분단과 화해를 분쇄해야 한다.

또한 민족적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을 사수 강화하고 반미 조공투쟁의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조공투쟁은 일시적 남극점 불과할 것이다.

△술해 학추위 사의의 최대

사이에 포함된 제반 통일주체외에도 임수경에 통일주체내외와 통일노에 한자중, 그리고 정치·후속 토론이등 다양한 행사 가 마련되어 있다. 통일주체가 가져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주체내외의 자주-민중-통일 투쟁을 8-15범민족 총회와 총화해 내고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큰 것이다.

△현재 각학회의 학추위 사업 현황과 학추위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초까지의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추위 사업은 주로 8-15 범민족 대회를 중심으로 한 계기성 사업들이었던게 사실이고 또한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추위의 건설이후 그 성과들은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총 2개 지부에서 대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추위가 발족된 상태이다. 작년 대비 T-5세대 투쟁을 앞당기는 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조직도 임진하게 학습장을 했다.

그리고 학추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산은 결국 「통일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전대회의 대중적으로도 자리가 확대 4인이 걸렸다면 학추위가 대중화 된다는 볼라 2년전에 안일했다. 그것은 학추위의 대중적 통일운동과 조직적 성과라고 본다.

△민중투쟁을 앞당기는 통일운동을 통해, 「통일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대중투쟁이 없는 상황 중립적 정치투쟁으로 머무는 수 밖에

# 북, UN무대에서 대결상태 해소 「하나의 조선」원칙 고수 긴장완화·민족주체 확립 등 자주 평화통일 위해 노력해야

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적 실재로 상호 승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한의 한시해 조공투쟁 화원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내용이나 정부의 부위원장이 북한이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기초에서 「하나의 조선」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접촉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지난 5월29일 통일대원칙을 위한 남북한 정치인 회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가입결정을 「본연의 남북의 민족의 화합을 다스리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시대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엔가입 이후에도 유엔활동을 통해 단련의 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한은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에 불응하고 여전히 「하나의 조선」원칙과 「두개의 국가적 실재」승인」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 유엔가입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미칠 영향

남북한이 유엔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후속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정치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문제와 관련하여는 남북한의 대결상태는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유엔대 로까지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윤선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가입을 계기로 유엔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문제를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남한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조 조약 체결권,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 유엔가입 결정 평화정착으로 대하는 입장, 주한미군과 핵무기철수 문제, 남북한의 군축과 불가침 등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가입은 문제와 연계되어 함께 해결되어 한다.

남한당국 역시 기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갖는다. 즉 정부는 평화정착문제와 관련하여서 점증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조선학의 개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남한당국은 북한이 하나의 조선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제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접근다리로 작용할 가능성보다 제재정책의 중폭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하였다.

### 유엔가입이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북한은 유엔가입 결정은 북한-일본의 수교와 북한-미국의 수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일본의 수교와 북한-미국의 관계개선의 최대의 걸림돌은 「핵사찰문제」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북한의 유엔가입을 핵사찰문제로 연계시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유엔가입 결정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안전협

으로 자주적 평화통일 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달라졌다 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조제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민족세력은 올바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두개의 국가적 실재」 「하나의 조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통일지향적인 입장을 전제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통일문제와 의 문제의 해결할 수 있음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엔가입은 민족주체적 관련과 자의 확립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찬행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

# “전민족적 통일방안 합의, 불가침선언 채택, 민족대단결의식 고취가 조공투쟁 3대 과제”

대협 출범식이 열린 부산대에 서 그 출범을 선언하였다. 지난 89년 입추계 대표의 평양 청년학생 추진위원회 통일운동의 새 지평을 개척한 이후, 작년 제1기 학추위를 건설하고 올해 제2기를 맞으면서 청년학생의 통일운동은 이제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투쟁 사업들을 준비·진행하고 있다.

△90년 조공투쟁(이하 조공투쟁)에 대한 평가 및 91년 조공투쟁 계획을 간략히 말하면.

..지난해 8.15 범민족대회 이후 민간인 상설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을 결성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 그것은 바로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주춧돌이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난해 조공투쟁의 요구가 있었다 해 그것은 조공투쟁의 7.20 담화 이후 자주적 교류 부문에 대해 보다 확고한 원칙을 틀어쥐기 위한 새 입장부담 현 정세의 제도화요인이 마련된 것이다.

올해의 조공투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전민족적 통일방안합의와 둘째, 한반도 긴장완화의 일환으로서 불가침선언 채택 셋째, 자주적 교류를 통한 민족대단결 의식 고취이다.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전민족적 통일방안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정권의 제도화요인인 새 지평을 개척한 것이 가 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공투쟁의 모든 귀결점은 바로 8.15 남북 해외 청년학생 대추연이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학추위

이다. 이제 제2기 학추위는 학우대중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 가슴속에 조공투쟁의 확고한 신심을 안겨줄 것이다.

(박현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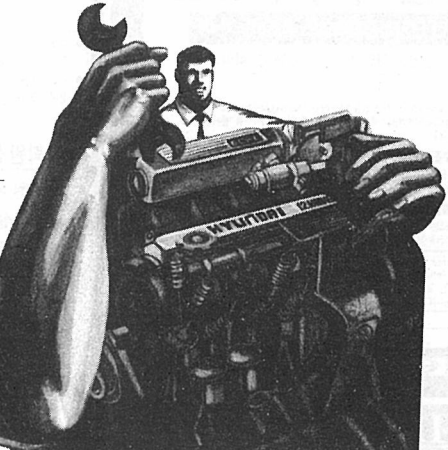


# 첨단 엔진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갑니다.

자동차의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자율적인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리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 선진국의 핵심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단 기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수백번의 시험과정을 겪으며 선진 자동차기술의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 바로 이들의 노력이 자동차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무대로 당당히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재세대로, 미래로 - 첨단 기술의 벽을 넘는다

엔진시험부는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엔진 성능 시험부와 연구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배기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곳은 엔진 설계형상의 개선 방안 타당성 엔진과 성능 비교 테스트, 신차 탑재 전 최적성 비교 엔진의 최적화 및 내구성 강화 테스트 등 최종 사양 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업무를 총괄합니다. 때로는 샘플 엔진에 때로는 선진기술의 벽에 부딪히며 하나 둘... 자동차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들 - 이들의 노력이 오늘을 사는 최첨단 정신이자 내일의 첨단 자동차기술을 리드해나갑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 바로, 그대가 아닌가

인간 의식과 생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유행만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용납되는 것 - 젊은 세대들만의 특권입니다. 세계 첨단 자동차 기술을 리드하며 지구촌 곳곳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펼쳐줄 내일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나간다.

現代自動車



### 교생실습기

# 천사의 수채화

# 수필 멋있는 사람들

# 문화 융합심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은 스스로의 감정에 제약을 가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기한 임박을 우려하며 마지막 한 페이지를 채워지 못하고 눈물로 마취제를 찍어야만 했던 고백이다.

예상초 보였기 때문에 사지 못한 내에게 아이들의 초롱 초롱한 눈동자를 천사의 눈이었고, 원망에 찬 이목이 있었다. 마치 헤어짐을 생각지 못한 한 아이는 허겁지겁 친구의 팔다리를 붙들고는 세게 손가락을 맞대고 울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의 선을 뿜어 리본을 만들어 멋있는 것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인간상을 바랄 수는 없다. 아이들이 슬피 울고만 있다면, 그 외면 반감을 초래할 뿐 더 이상의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었다. 더 이상 참교육의 외면은 미래의 부끄러움이다라고 말이다.

아이의 수채화는 뜻밖에도 그들은 선생님의 제발이 무서운 게 아니다. 그들의 빼앗긴 감정과 사색의 시간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것은 마지막 주에 2학년 여학생만 학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의 일에 사랑과 정열로 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렇다. 게다가 그의 일과 자신의 이기성에 얽매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출발만 방향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발을 밟아도 무방하다.



이것이 이야기  
—백기원 역음—  
「우리 거래의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인본상을 소개해 주었던 백기원씨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고 이진 바다같은 인본성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은 통해 우리 거래의 꿈과 세계와 해방사상의 뿌리를 말해 준다.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어체 문장이 더욱 흥미를 높여 준다.

(인문융합심 6월 4주)

그런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린 교생들은 방도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의 선을 뿜어 리본을 만들어 멋있는 것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교생들은 이제 올 것이 오는가 보다 하는 기대만 근심만 마음은 후회했다. 교무주임은 그랬다. 「오늘은 애틍 기쁨으로 옛날 잔치 않고 할말은 딱하고 표정을 하나씩 일구어라 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을 이 런다고 절제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기쁘고도 상쾌적인 존재로 함께 하고자 했다.

교생들은 이제 올 것이 오는가 보다 하는 기대만 근심만 마음은 후회했다. 교무주임은 그랬다. 「오늘은 애틍 기쁨으로 옛날 잔치 않고 할말은 딱하고 표정을 하나씩 일구어라 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을 이 런다고 절제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기쁘고도 상쾌적인 존재로 함께 하고자 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범죄자, 기인가들, 언론인들... 이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언행들로 인해 이 사회는 요지경 속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까? 혹독하게 일하고 노고를 알고 있다. 농촌에서, 탐방에서, 공장에서 땅을 갈고 일하는 이들은 노고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노고인 것이다. 때문에 나는 방송토록 불합리한 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이다. 이 땅의 많은 이로서 불의에 항거하는 의연한 모습들을 사랑한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범죄자, 기인가들, 언론인들... 이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언행들로 인해 이 사회는 요지경 속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까? 혹독하게 일하고 노고를 알고 있다. 농촌에서, 탐방에서, 공장에서 땅을 갈고 일하는 이들은 노고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노고인 것이다. 때문에 나는 방송토록 불합리한 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이다. 이 땅의 많은 이로서 불의에 항거하는 의연한 모습들을 사랑한다.

「자신의 일에 그러한 정열과 같은 사랑을 쏟아내는 이들은 노고의 정의를 실천하며 노고의 많은 편만과에 의해 정직하게 평가받았으리라 믿는다.

동아나 피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정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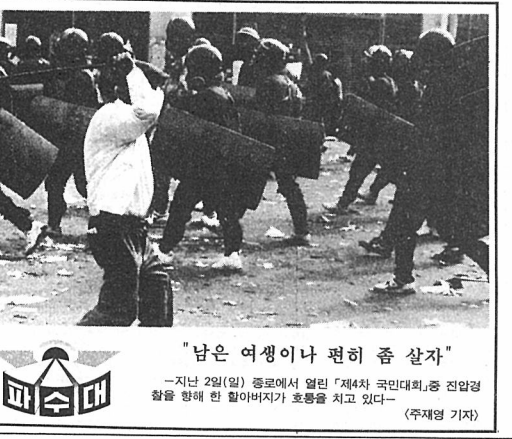
서로를 사랑하는 성실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느낀 호감함을 느꼈으면 한다.

한 승우  
(상경·경제4)

이것이 이야기  
—백기원 역음—  
「우리 거래의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인본상을 소개해 주었던 백기원씨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고 이진 바다같은 인본성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은 통해 우리 거래의 꿈과 세계와 해방사상의 뿌리를 말해 준다.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어체 문장이 더욱 흥미를 높여 준다.

(인문융합심 6월 4주)



“남은 여생이나 편히 좀 살자”  
—지난 2일(월) 중문에서 열린 「제4차 국민대회, 중문중앙학원」에 참가한 아버지가 호응을 보이고 있다. — (주재영 기자)

크로노스 회담사람의 기억이 울다면 그는 회담의 최초의 인이며, 원중(元中)의 지배자인 우라노스의 아들이다. 원중의 신인 우라노스는 크로노스라는 아들에 의해 살해당함으로써 아들이 속해서 피장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제 날 레이는 더이상 탄생할 수 없다는 모성애에 걸렸을 때, 그리하여 아들 제우스를 낳았을 때 그녀는 제우스를 돌피시키고 대신 남편에게 강요에 쌓인 돌덩이를 낳았다. 크로노스가 그것을 삼켜 버린 것은 물론이다. 신화가 지닌 영원한 상상력에 의해 제우스는 아주 급하게 성장해 버린다. 그리고

## 수필

크로노스 회담사람의 기억이 울다면 그는 회담의 최초의 인이며, 원중(元中)의 지배자인 우라노스의 아들이다. 원중의 신인 우라노스는 크로노스라는 아들에 의해 살해당함으로써 아들이 속해서 피장을 강요당하고 있다.

## 크로노스

아이들은 사정없이 잡아 먹어 버린다. 놀랍게도 그의 아내인 레이는 매일 한 마리의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사나운 거인왕은 그 신생아들을 가져다먹어 버린다.

이제 날 레이는 더이상 탄생할 수 없다는 모성애에 걸렸을 때, 그리하여 아들 제우스를 낳았을 때 그녀는 제우스를 돌피시키고 대신 남편에게 강요에 쌓인 돌덩이를 낳았다. 크로노스가 그것을 삼켜 버린 것은 물론이다. 신화가 지닌 영원한 상상력에 의해 제우스는 아주 급하게 성장해 버린다. 그리고

## 놀가리스

「하루」라는 이름의 신생아와 같은 새날을 가져다먹어 버리고, 다시 새를 낳을 기다리는 부인의 모습과 기막히도록 비슷한 숙명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4489년 장엄한 황후의 죽음 이후, 29일 간헐성의 하루, 5월 19일 간헐성의 하루, 3일만 천애를 하루...

이처럼 23일 간헐적으로 노정권이라는 커다란 인력으로 젊은 이 체제가 먹히 들어갔다. 크로노스가 허무에 한평생을 제우스의 형제들을 잡아 먹은 것처럼 노태우를 계속했던 것이다. 아직도 그러한 먹고 먹히는 행위는 씩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이러한 장래행위를 계속 이어지지만 한 번 말한, 도대체 언제까지 피할만 할은 가슴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만 할만 말인가. 이제 크로노스가 아닌 노가리스의 포만감을 억제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노가리스의 공복감을 젊은 가슴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제우스의 등장이란 절한 때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0명  
2. 모집과정: 국문, 영문, 일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이태어, 서반아어, 인도어, 일본어, 교양, 전자계산기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② 면접  
4. 원서접수: 1991년 6월 3일(월)부터 6월 18일(화)까지  
5. 시험일: 1991년 6월 20일(토) 오후 2시

\* 원서접수는 수업료의 25%를 학비로 납입한다.  
\* 재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석사학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  
\* 입학시험은 1991년 6월 20일(토) 오후 2시 7:00~11:00(한국시간)에 실시한다.

## 교육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0명  
2. 모집과정: 국문, 영문, 일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이태어, 서반아어, 인도어, 일본어, 교양, 전자계산기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② 면접  
4. 원서접수: 1991년 6월 3일(월)부터 6월 17일(일)까지  
5. 시험일: 1991년 6월 22일(토) 오후 2시

\* 원서접수는 수업료의 25%를 학비로 납입한다.  
\* 재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석사학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

## 무역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학과 0명  
2. 모집과정: 국문, 영문, 일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이태어, 서반아어, 인도어, 일본어, 교양, 전자계산기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② 면접  
4. 원서접수: 1991년 6월 10일(부)부터 6월 14일(금) 17시까지  
5. 시험일: 1991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 원서접수는 수업료의 25%를 학비로 납입한다.  
\* 재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석사학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

## 1991학년도 후기 대학원(야간) 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0명  
2. 모집과정: 국문, 영문, 일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이태어, 서반아어, 인도어, 일본어, 교양, 전자계산기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② 면접  
4. 원서접수: 1991년 6월 10일(부)부터 6월 14일(금) 17시까지  
5. 시험일: 1991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 원서접수는 수업료의 25%를 학비로 납입한다.  
\* 재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석사학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